

퀀틴전시 플랜



[다음주 시장은?] 실적시즌, 미중 정상회담 종료, 다시 경제지표, 종전 협상 주목

[투자전략팀]

이경민 / Strategist
kyoungmin.lee@daishin.com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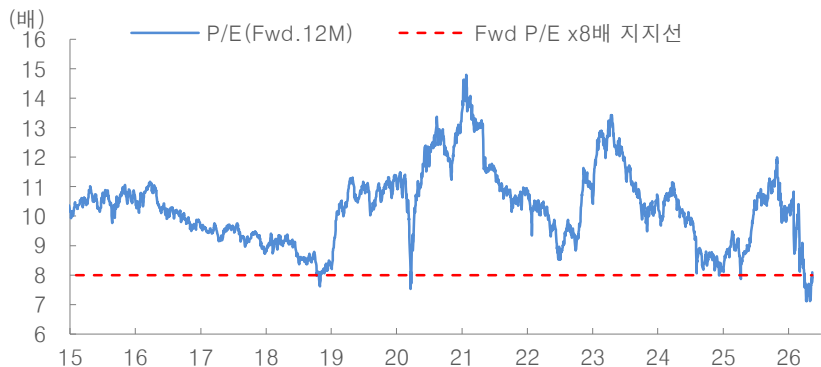
중국 실물지표, 미국 PMI 발표, 종전 협정 마무리 가능성을 감안한 업종 선택 중요

- 5월 들어 KOSPI는 단 8거래일 만에 1,380p, 20.1% 급등하며 8,000선에 바짝 다가섬. 이 과정에서 반도체는 KOSPI 급등의 85.3%를 기여. 반도체의 실적, KOSPI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임을 확인하는 한편, 과도한 쓸림 현상으로 인한 반작용 전개 가능성을 시사. KOSPI와 반도체 업종의 상승 피로 누적, 과열 부담 가중. 주간, 월간 기준 실적 대비 고평가 영역으로 전환. 1월, 2월, 4월 반복되어 왔던 월초 반도체 급등 이후 Non-반도체 동반 상승 또는 상대적 강세 흐름에 대비해야 할 시점
- 26년 1분기 실적 종료로 실적 전망 상향 조정은 진정될 것. 이 경우 KOSPI 밸류에이션 정상화 전개 예상. 특히, 최근 급등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실적대비 저평가 업종들의 순환매 전개 예상. KOSPI 선행 PER은 이제 막 8배를 회복한 수준. 단기 과열해소, 매물 소화 국면 진입하더라도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 선행 PER 직전 저점인 7.12배는 7,024p, 6,950 ~ 7,100선에 5월 6일 돌파급 위치, 의미있는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기대
- 5월 14일 증가 기준 주간, 월간 선행 EPS 변화율 대비 주가 저평가 영역에 위치한 업종은 화학, 에너지,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은행, IT가전, 증권, 화장품/의류, 필수소비재
- 다음주 18일 중국 실물지표(소매판매, 산업생산, 투자 등) 발표 예정. 최근 경기 회복, 물가 반등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견조한 중국 경기 모멘텀을 확인할 경우 화학, 에너지, 화장품, 필수소비재 반등에 힘이 실릴 전망
- 미국은 21일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활동지수, 마켓 제조업/서비스업 PMI 발표 예정. 미국 경기가 견고함을 확인할 경우 수출주, 소재주 반등시도 기대. 화학, 에너지, IT가전 등에 긍정적일 것. 이와 함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이란과 종전 협정이 마무리될 경우 유가 및 채권금리, 달러 안정이 가시화되면서 그동안 억눌려있던 성장주가 주목받을 경우 건강관리, 인터넷 업종 반등에 힘이 실릴 수 있음
- 외국인 매도는 불가피한 상황. 글로벌 증시 대비 KOSPI의 압도적인 상승탄력(연초 이후 87% 이상 상승)의 영향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KOSPI Outperform 폭이 확대된 데 따른 리밸런싱 차원에서 매물 출회로 판단. 따라서 외국인 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이 자리를 금융투자가 꿰차면서 KOSPI 등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금융투자의 월초 반도체 집중 매수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이지만, 5월 중순에는 반도체 집중 매수가 완화되면서 순환매 장세를 주도할 전망.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금융투자가 순매수하는 업종에는 기계, IT하드웨어, 상사/자본재, 자동차, 증권, 디스플레이뿐. 금융투자의 순매수 업종 확장 여부가 관건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퀀틴전시 플랜 자료는 대신증권 리서치 소속 **퀀트, 전략, 시장** 애널리스트의 현재 시장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담아낸 자료입니다. 매일 이슈에 대한 분석과 시장 리뷰, 확인해야 할 데이터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주가와 실적의 괴리 확대. 12개월 선행 P/E 8.09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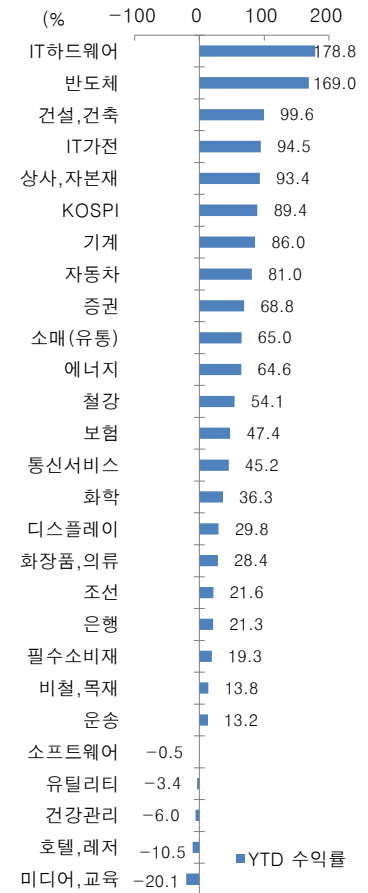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KOSPI, 업종별 수익률 추이

주요 지수	현재가 (p)	등락율(%)						
		1D	1W	1M	3M	6M	12M	YTD
KOSPI	7,981	1.8	6.6	33.7	44.9	99.0	202.3	89.4
에너지	7,840	0.7	-2.5	17.6	27.3	53.3	130.1	64.6
화학	6,099	2.3	-6.1	18.1	21.4	20.6	88.1	36.3
비철, 목재	8,051	1.5	-2.2	-6.5	-6.3	25.4	62.1	13.8
철강	3,345	2.0	-7.1	28.4	28.0	51.2	82.1	54.1
건설, 건축	3,034	4.8	-6.2	1.8	48.9	106.4	139.7	99.6
기계	16,664	-2.2	-10.5	29.6	45.4	75.2	262.7	86.0
조선	10,602	-4.5	-7.7	12.5	10.4	11.2	71.6	21.6
상사, 자본재	6,715	1.0	3.0	25.6	46.5	105.7	204.6	93.4
운송	1,995	1.2	3.6	6.3	-1.8	22.0	17.0	13.2
자동차	21,460	0.1	22.5	36.4	29.1	99.5	154.0	81.0
화장품, 의류	6,297	4.9	4.1	8.5	10.2	28.9	37.3	28.4
호텔, 레저	2,068	5.5	-1.4	1.5	-16.3	0.1	11.7	-10.5
미디어, 교육	630	5.2	0.7	0.2	-29.4	-15.6	-7.3	-20.1
소매(유통)	3,325	9.2	13.5	36.2	25.8	66.7	87.8	65.0
필수소비재	8,126	6.7	5.9	8.6	5.1	17.1	30.8	19.3
건강관리	9,952	3.0	-1.1	-3.4	-16.1	-0.4	25.5	-6.0
은행	3,246	2.7	-2.7	-2.0	-9.6	20.0	67.8	21.3
증권	3,789	1.5	-7.9	-0.3	4.2	61.8	133.2	68.8
보험	15,310	7.8	8.6	18.1	19.1	49.2	116.6	47.4
소프트웨어	7,132	5.6	5.8	9.6	-4.6	-3.3	21.6	-0.5
IT하드웨어	3,820	-0.1	9.0	59.8	150.7	209.0	410.9	178.8
반도체	55,881	2.2	13.2	57.0	85.7	223.2	545.4	169.0
IT가전	3,603	4.0	1.8	36.1	56.1	66.5	157.4	94.5
디스플레이	915	7.4	19.9	19.0	29.3	17.3	59.6	29.8
통신서비스	533	0.8	7.6	1.4	6.4	46.0	51.7	45.2
유틸리티	1,312	-1.4	-10.1	-7.7	-24.0	-5.1	51.4	-3.4

KOSPI, 업종별 YTD 수익률



주: Top 5, Bottom 5
 자료: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

권역/국가	P/E			P/B			ROE(%)			12M fwd EPS Revision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2026년	2027년	12M fwd	1W	1M	속도
전세계	18.9	16.4	17.7	3.4	3.1	3.3	18.2	18.6	18.4	1.6	5.9	
선진국	20.4	17.9	19.1	3.7	3.3	3.5	18.3	18.7	18.5	1.0	4.9	
신흥국	12.4	10.4	11.5	2.2	1.9	2.1	17.6	18.2	17.9	4.3	10.6	▲
북미	22.4	19.4	20.8	4.9	4.3	4.6	22.0	22.2	22.1	2.4	4.5	▲
유럽	15.1	13.7	14.5	2.3	2.1	2.2	14.9	15.3	15.1	1.3	3.7	▲
퍼시픽	17.1	15.4	16.6	1.8	1.7	1.8	10.8	11.3	11.0	1.7	2.9	▲
라틴	10.4	9.8	10.1	2.0	1.8	1.9	19.3	18.8	19.1	0.6	5.4	
EM 유럽	9.9	8.6	9.3	1.4	1.3	1.4	14.6	14.7	14.8	1.9	3.1	▲
EM 아시아	12.8	10.6	11.8	2.3	1.9	2.1	17.6	18.4	17.9	5.2	12.6	▲
선진 시장												
S&P 500	22.6	19.5	20.9	5.1	4.4	4.7	22.3	22.6	22.6	2.7	4.8	▲
NASDAQ	28.9	23.2	25.5	7.0	5.7	6.3	24.4	24.8	24.8	3.8	6.2	▲
프랑스	14.7	13.5	14.2	1.9	1.8	1.9	13.1	13.4	13.2	1.2	1.3	▲
독일	15.4	13.3	14.3	1.8	1.7	1.7	11.6	12.5	12.0	1.1	0.9	▲
영국	12.7	11.8	12.4	2.1	2.0	2.1	16.8	16.8	16.8	0.9	2.8	
일본	16.8	14.9	16.4	1.8	1.7	1.7	10.5	11.1	10.7	0.8	1.4	▲
신흥 시장												
중국	12.1	10.5	11.4	1.4	1.3	1.3	11.5	12.2	11.8	2.3	2.1	▲
인도	21.0	18.1	20.5	3.1	2.8	3.0	14.7	15.2	14.8	1.4	0.7	▲
한국	7.4	5.8	6.6	2.1	1.6	1.8	28.1	27.0	27.6	7.9	24.6	▲
대만	23.1	18.4	20.9	4.9	4.1	4.6	21.1	22.5	21.8	3.3	8.1	▲
브라질	9.2	8.7	9.0	1.9	1.7	1.8	20.3	19.7	20.0	-0.6	2.0	

기준일: 2026.05.13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밸류에이션 테이블(Z-Score, ○: 2년 평균 기준, ●: 5년 평균 기준)

권역/국가	PE	Z-Score									
		-2이하	-2 ~ -1.5	-1.5 ~ -1	-1 ~ -0.5	-0.5 ~ 0	0 ~ 0.5	0.5 ~ 1	1 ~ 1.5	1.5 ~ 2	2이상
전세계	17.7				○		●				
선진국	19.1					○		●			
신흥국	11.5			○	●						
북미	20.8				○		●				
유럽	14.5						○	●			
퍼시픽	16.6							○	●		
라틴	10.1							○	●		
EM 유럽	9.3									○	●
EM 아시아	11.8		○	●							
S&P 500	20.9				○		●				
NASDAQ	25.5			○	●						
프랑스	14.2					○	●				
독일	14.3						○	●			
영국	12.4						○	●			
일본	16.4								○ ●		
중국	11.4						○ ●				
인도	20.5		○	●							
한국	6.6	○ ●									
대만	20.9										○ ●
브라질	9.0							○	●		

기준일: 2026.05.13
 자료: I/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글로벌 주요국 EPS Growth(% YoY)

권역/국가		2026년	2027년	2028년	27-28년 평균
권역(대)	전세계	25.8	14.9	11.8	13.4
	선진국	20.7	14.0	12.2	13.1
	신흥국	54.5	19.2	10.0	14.6
권역(소)	북미	23.6	15.4	13.5	14.4
	유럽	16.4	10.6	10.0	10.3
	퍼시픽	11.4	11.1	8.1	9.6
	라틴	25.9	6.8	6.4	6.6
	EM 유럽	19.0	14.4	10.3	12.3
EM 아시아	65.3	21.5	10.7	16.1	
선진국	S&P 500	23.2	16.3	13.1	14.7
	NASDAQ	43.7	24.5	18.6	21.5
	프랑스	19.4	9.3	9.3	9.3
	독일	9.0	15.7	13.5	14.6
	영국	17.4	7.9	8.0	8.0
	일본	10.7	12.8	9.2	11.0
신흥국	중국	13.6	15.2	12.3	13.8
	인도	15.8	15.7	14.7	15.2
	한국	253.7	26.4	4.1	15.3
	유럽	16.4	10.6	10.0	10.3
	브라질	32.8	6.5	6.1	6.3

기준일: 2026.05.13

자료: V/B/E/S,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 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 이경민)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